

“우리는 피 땀 눈물로 희망을 짓습니다”

- 『노가다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북콘서트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산추련) 활동은 늘 고통받는 노동자 곁에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30여 년 활동해 오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노동자에 대한 기억이 장면, 소리, 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심상들은 저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번 기록은 양회동 열사의 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사의 유서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얻는 절절한 행복, 그리고 짓밟힌 자부심이 선명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 삶, 투쟁 기록 활동을 거치며 또 다른 질문들이 쌓여 갑니다.

짓밟힌 자부심, 부정당한 삶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정부 내내 계엄 상태에서 지내 왔습니다. 건폭몰이 탄압 이전에 화물연대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8일은 화물연대에 2차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된 날이고, 경찰청의 ‘건설 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건폭’몰이 혐오정치의 시작은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말이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명명한 뒤 경찰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 4,829명은 ‘조폭’이 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총 22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2,25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4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언론은 편향적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에 노동자들은 자부심이 짓밟혔고 삶을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일 노동절,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윤석열



▲ 2025.05.08.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경남북콘서트 사진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했습니다.

목소리를 기록하는 연대

건폭물이에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들과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 고민 끝에, 부산·울산·경남 건설노동자의 탄압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 경남도민일보와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임금체불투쟁 농성장에서, 김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동안 울컥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후 답답함, 억울함에 울부짖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기록 활동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게 되었고, 건설 현장의 소수자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그 결과로 12명의 노동자 구술기록이 담긴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라는 책을 지난 5월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 활동에는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 이주 활동가, 기자를 포함하여 총 9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건설노조 활동가까지 총 30여 명이 함께한 공동작업의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알아차림과 연결을 꿈꾸는 북토크

양회동 열사 2주기 추모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서울, 경남에서 북콘서트를, 국회에서도 ‘윤석열 건폭물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 회복 토론회’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 만나는 지역 북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북콘서트에 함께 했던 ‘노동자역사 한네’의 양돌규님은 ‘건폭물이’라는 것이 마치 재난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나와 주위 가족, 동료, 마

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큰 사태인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록’이라는 말씀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서울 북콘서트에서 소설가 김훈님께서 어느 날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의 가림막 넘어 1층에 15층까지 일렬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인간의 노동은 저런 것’이라는 걸 벼락치듯 깨닫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그 가림막 뒤에서 벌어지는 노동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림막에 덧붙여진 혐오와 낙인의 통치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혐오 정치의 민낯과 보수 언론이 가리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불법’과 ‘폭력’을 무기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38년 건설노동자 인생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죽도록 일한 것이고, 하나는 노조를 조직해서 인간답게 살게 된 것’이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 깊은 애정과 자부심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노동자에게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처럼 죽을 것만큼 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체불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일하다 다치고 병들어도 산재로 치료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나 임금체불을 줄이고, 일요일에는 쉬게 되고, 휴게실도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은 단순히 집과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피, 땀, 눈물로 삶의 희망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조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이었고, 노조는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했던 건설노동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노조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힘든 일 한다고 천대받지 않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 현장,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현장이 양회동 열사의 염원이고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치유의 시작이며, 그 목소리를 듣는 건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슴속 응어리처럼 가득 차 있던 언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읽어줄 때 그 언어는 더 단단해진다는 걸 기록 활동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단단해진 언어들이 서로 연결될 때 차별과 혐오의 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주변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불법폭력 근절’이라는 가림막이 남아있습니다. 임금체불, 차별 없는 현장이라는 현수막이 자리하게 될 때까지 두박두박 걸어가려 합니다. 